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추억여행을 떠나자

안기순 | 번역가

저자인 니콜라스 스파크스는 《기억 속으로 걷기^A Walk to Remember》《병 속에 담긴 편지》《노트북》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책은 저자가 형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의 형식에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인기를 돌아보는 내용을 입힌 독특한 회고록이다.

어느 날 저자는 3주 동안의 세계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선전용 브로슈어를 받고 세계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를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점에 마음이 움직여 형인 미카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형제는 손수 짐을 들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마야유적지, 잉카사원, 이스터 섬의 바위거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타지마할, 에티오피아의 바위 성당 등을 돌아본다.

일반적인 여행기와는 달리 여행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정직하고 신중하며 특이하다. 마추피추에 대해 “단순히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다”로 시작하는 감상을 적었듯이 그의 여행지에 대한 묘사는 간결하고 색다르다. 또한 전설의 유적지를 여행하면서 형제는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으며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역전에 놀라고, 평화로운 순간도 언제고 순식간에 산산조각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이 책의 각 장은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넘어가듯이, 과거로 날아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즉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반면에 비극적인 사건이 줄이어 일어났던 결정적 순간을 회상한다.

장난이 심했던 형제의 어린 시절 얘기를 읽을 때는 즐겁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연달아 겪고 이제는 가족 중에서 단 두 형제만 살아남은 현실에는 마음이 저려온다. 어머니를 낙마사고로 잃고, 아버지를 자동차 사고로 잃고, 여동생 또한 뇌종양으로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자신의 결혼과 부모가 된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첫 아이를 잃고 둘째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아들의 자폐증을 호전시키기 위한 저자의 노력도 가히 감동적이다. 저자는 자기 삶을 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생의 희로애락과 상실, 사랑, 희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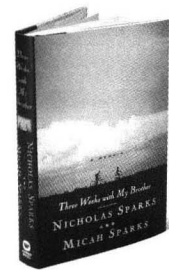
흥미진진한 여행을 기대하고 이 책을 접한다

면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개인적인 여행담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엮어 넣는 형식을 취한 까닭에 어린 시절에 대한 형제의 회상이 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보면 마치 스파크스의 소설을 읽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소설의 영감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 또한 이 여행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이를 세계여행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나란 인물이 형성되어 왔는지 재발견하는 여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듯이, 형제가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여행을 계기로 기억에서 끄집어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그간의 고통을 통해 이제는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겠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고, 불확실한 삶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추억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저자의 유머와 솔직함을 맛보고,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 사진을 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또한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는 하지만 문장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어 학습서를 찾고 있는 독자에게도 권할 만하다. **추천**

English



원 제 《형과 함께 보낸 3주일 Three Weeks with My Brother》

저 자 니콜라스 스파크스 Nicholas Sparks & 미카 스파크스 Micah Sparks
출판사 Warner Books

우리는 학교괴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김지효 | 번역가

Japanese



원 제 《바이바이 스쿨 : 학교에서 일어난 일
곱 가지 불가사의한 사건》

저 자 하미네가오루

출판사 고단샤

아무도 없는 음악실에서 피아노소리가 들려온다, 복도 거울에 피투성이 얼굴이 비친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공동묘지였다... 학교에 떠도는 이런 괴담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힘을 갖고 있나보다. '무서워'를 연발하면서도 끝까지 다 듣고 싶어하고, 유난히 호기심 왕성한 아이는 무섭다고 꿈무니 빼는 친구까지 잡아끌면서 현장확인에 나서니, 무섭다는 그 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 책은 한창 그런 종류의 괴담에 빠져들기 시작한 아이들 세계를 그렸다.

오오쿠무라 초등학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둘러싸인 아주 작은 학교다.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여섯 명밖에 안 되고, 선생님도 학생 수와 똑같다보니 마치 대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런데 폐교를 앞두고 가진 마지막 여름방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같이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리칼이 주뻗서는 사건들이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고개가 가웃거리지기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 어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일을 도와드리고 함께 뛰놀았다. 수업만 없었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방학하기 전이나 방학하고 나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좀 이상한 것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불가사의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는 점이다.

무더운 8월 어느 날, 우리는 담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 전교생이 교정에 모였을 때는 이미 달이 두둥실 떠오르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모두 으스스한 유령복장을 하고 나타나셨다. 자, 이제부터 제1교사를 통과해 제3교사까지 차례로 다녀오는 담력테스트 시간이다. 물론 학교 건물에는 과학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에 의지해 가면서 어둠 속을 조심조심 헤쳐 나아가야 한다.

목조건물인 데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는 유난히 삐걱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드디어 계단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불가사의한 사건'과 맞닥뜨

리게 될 줄이야. 열넷이어야 할 계단수가 열셋으로 줄어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학실의 골격표본이 춤을 추고, 공이 저 혼자서 계단을 올라오고, 수영장의 수면 위에 거대한 여자 얼굴이 비치는 등 '불가사의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덮쳤다. 반신반의했던 괴담이 모두 진짜였다니. 우리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가 보다.

이해하기 힘든 이 괴사건은 사건추리와는 담을 쌓고 지낼 것 같은 친구에 의해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제 우리는 괴사건을 생각해 낸 사람과 사건에 동원된 각종장치,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이유까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불가사의한 사건 하나하나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따뜻한 마음과 유머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것이 하도 아까워서 독자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선생님도 우리도 이번 여름방학과 오오쿠무라 초등학교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건물이 해체되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텅 빈 땅을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학교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이곳은 오오쿠무라 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용감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재미있게 공부하며 뛰놀았습니다."

흥미로운 단서 따라 예술사 추적해 보자

조정훈번역가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것들은 아주 느린 진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단순한 미적 직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작품에 대한, 작가에 대한, 그 장르에 대한 방대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작품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의 첫인상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장과정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방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은 특히 그렇다. 하나의 미술을 감상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심각한 우울증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권총자살로 마감해야 했던 반고흐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상파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롱에 출품된 모네의 그림을 보고 당시 평론가들이 분노했는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저 난해한 미학 이론서들과 지루한 미술사들을 처음부터 섭렵해야 할까? 다행히도 세상에는 보다 재미있고 유쾌하게 미술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프랑스의 라루스 출판사가 낸 '그림 읽기 Lire la peinture' 시리즈는 이런 미술 입문서들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책 중 하나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권 《아틀리에의 비밀 속으로 Dans le Secret des Ateliers》를 소개하려 한다. 제1권 《작품의 깊은 곳으로 Dans l'intime des Oeuvres》에서 작품들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미술 감상에 접근했다면 제2편에서는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의 아틀리에를 엿봄으로써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미술사에 접근하고 있다. 14세기 중세 교회 안의 작은 공방에서 현대의 추앙받는 천재 화가들의 개인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 흥미로운 단서를 따라 탐정처럼 예술사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그리고 미술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중세가 끝날 때까지 유럽에서 화가나 조각가는 피렌체의 의사나 볼로냐의 종이 제조업자처럼 길드에 소속된 장인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직

업이 상속되었으며 젊어서부터 오랜 도제 기간을 거쳐 기술을 전수받아야 했다. 그 시절 돌을 깎는 사람, 제단화를 그리는 사람, 색칠을 하는 사람, 제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의 역할과 생활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교회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예술가들이 자신을 예술가로 인식하게 된 14세기, 자신의 개인적 재능을 인정받기 위해 작품에 사인을 하고 귀족이나 후원자들이 주문한 그림에 자기 초상화를 슬쩍슬쩍 끼워 넣은 이야기, 19세기 살롱 전 입선 작가들과 낙선 작가들 사이에 논쟁이 일고,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사조가 생겨난 이야기 등을 따라가다 보면 유럽에서 예술이 발전하고 형성되어 간 맥락을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단 위 성화에 색을 칠하거나 금을 입혔던 이름 없는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보수가 따랐을까? 과연 그들은 부나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전시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도 따라서 예술 시장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예술가들은 어떻게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 사람들이 작품을 청탁하거나 주문하게 했을까? 당시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을까? 예술가들의 교육과정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유럽 미술사의 큰 흐름을 한 줄기로 꿰 수 있다. 이제 막 미술이 주는 행복의 세계로 입문하는 아들에게 딱딱딱딱 망치 소리가 들리는 예술가의 아틀리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책이다. **★**

French



원 제 《그림 읽기 2 : 아틀리에의 비밀 속으로 Lire la peinture, : Dans le secret des ateliers》
지은이 라루스 편집부
출판사 라루스 Larousse

괴테를 둘러싼 터부를 건드리다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German



원 제 《호랑이의 애무. 에로틱 괴테 전기》
Die Liebesungen des Tigris. Eine erotische Goethe Biographie
 저 자 Karl Hugo Pruys
 출판사 edition q

괴테의 문학을 이른바 체험문학이라고 일컫는 배경에는 평생 동안 즐기치게 이어졌던 그의 여성 편력 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며 그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서전 《시와 진실》에서 고백을 한 바 있다. 우리에게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그의 연애편력은 소년에 의해 폭력적으로 꺾이는 〈들장미〉로 표현된 시골목사의 딸 프리데리케 브리온과의 짧았던 만남과 헤어짐이다. 이러한 그의 여성편력은 73세가 넘은 나이에도 19세의 처녀 울리케 폰 레베초프에게 구혼하는 모습으로까지 계속된다. 질풍노도 시기의 젊은 혈기에서만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니 그의 내면에서 분출된 삶의 본능적 에너지의 강도를 추측 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놓은 사람이 있다. 본의 저널리스트이자 괴테 전문가인 칼 후고 프뤼스는 괴테가 겉으로는 여자들을 위한 시를 쓰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남자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한다. 독일 문학의 거장에 대해 200년 넘게 터부시 되어왔던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그가 증거로 내세우는 괴테의 남자 연애 상대는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요한 게오르크 침머만과 철학자 프리드리히(“프리트츠”) 하인리히 야코비이다. 프뤼스의 주장에 대해 괴테 학회를 비롯한 괴테 옹호자들은 격한 반감을 보인다. “어림없는 건강부회다. 질풍노도 시기에는 남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도 그 표현에 있어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 18세기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 시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프뤼스는 이렇게 되받아친다. “무슨 말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시적인 메타포가 아니라 직접 겪고 고민한 현실이다.” 프뤼스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증언으로 택하고 있다. 괴테가 호모였다고 하는 명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그와 편지를 나눈 야코비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은근한 애정이다. 그는 또한 괴테가 다른 남자들과도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그는 “호랑이의 애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괴테와 친분을 맺었던 의사이자 저술가 침머만이 한 말이다. “괴테의 애무는 꼭 호랑이가 하는 애무 같아요. 그래서 그와 포옹을 하고 싶노라면 늘 주머니 속의 단도를 움켜잡고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괴테가 바이마르 공국의 대신 시절에 샬롯테 폰 슈타인 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대공의 부인 안나 아말리아를 사랑했었다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는 괴테에게서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불행하게 만든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기에 적었듯이 “괴테에게서 위안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괴테의 감정 혹은 감각의 스펙트럼의 폭이 넓고 섬세했다는 말이며, 그것이 그에게 다양한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괴테의 문학이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보편성을 띠는 데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터부를 건드린 한 자연인으로서. *******